

비 스 뒤

「어- 얼마나 반가운비냐」

할아버지의 즐거움.

가물들었든 곡식 자라는소리

할아버지 담배 빠는 소리와같다.

비 스뒤의 해 스살은

풀녘에 아릅답기도 하다.

비 스 뒤

「어- 얼마나 반가운 비냐」

할아버지의 즐거움.

가물 들었던 곡식 자라는 소리

할아버지 담배 빠는 소리와 같다.

비 스뒤의 해 스살은

풀잎에 아릅답기도 하다.